

IFES

뉴스레터

2025년 7/8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IFES



뉴스레터
33호(7/8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진 연구활동	16
3. IFES 브리프 및 포럼	28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33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38
2. 언론 속의 IFES	41
3. IFES 도서관	43
4. 예정사항	45
5. 안내사항	46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진 연구활동

IFES 브리프 및 포럼

북한·국제 정세 동향



1. 학술활동

가. 2025 평화포럼(Peace Forum 2025) 개최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전 통일부장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변화하는 국제정세…우정과 협력을 넘어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표명”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전 통일부장관)은 6월 13일 오후 1시 30분 경남대학교 창조관(평화홀 1층)에서 ‘트럼프 2기 출범과 동북아 정세 변화 전망 및 3국의 대응’을 주제로 일본 소카대학(Soka University), 대만 중국문화대학(Chinese Culture University)과 함께 ‘2025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 전망과 3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박재규 총장은 2025 평화포럼 개최 인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 일본 및 대만의 시각을 진솔하게 교류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박 총장은 “이번 포럼이 우정과 협력을 넘어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스즈키 미카(Suzuki Mika) 일본 소카대 총장은 영상을 통해 개최 인사를 전했다.

‘한국 정부의 동북아 정책 제언: 대북정책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제1회의는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의 발표와 타마이 히데키(Tamai Hideki) 일본 소카대 부총장 및 웨이지아인(Wei Chia-Yin)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최영준 실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남북관계의 비전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존과 공영의 토대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심리전 중단 ▲기존 합의사항 준수 ▲대화채널 복원 등의 실천 조치를 제안”했고, 또한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남북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마이 히데키 부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정책변화, 미중러 간의 관계 변화 등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국가의 생존과 국가 이익 추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세력 균형 및 위협 헤징과 같은 외교 전략을 유연하게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웨이지아인 교수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위한 동북아 정책 제안이 양안 관계에 대한 교훈이 되며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경제 이익에도 기여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북 관계와 대만해협 관계에 대한 비교 사례 연구를 학술적 목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1. 학술활동

‘미중러 관계 변화 전망 및 일본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2회회의는 코이데 미노루(Koide Minoru) 일본 소카대 교수의 발표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및 로저 S. 첸(Roger S. Chen)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코이데 미노루 교수는 “미중러 전략 삼각관계의 변화가 일본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선 도전요인으로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체계적 경쟁자로의 부상,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 증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의 워싱턴의 변동하는 글로벌 약속은 일본의 전후 외교를 뒷받침했던 안정성을 집단적으로 붕괴시켰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교수는 “미중러 전략 삼각관계의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에서 공통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일 3자 협력 ▲경제 안보 네트워크 구축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 ▲역사적 갈등 관리 등은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 방안들”이라고 제안했다. 로저 S. 첸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중러 삼각관계 속에서 일본의 글로벌 역할을 새롭게 상상할 것을 도전 한다”며 “트럼프 하의 미국 정책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의 선택은 다가오는 몇 년 동안 그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더 넓은 균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안 관계 변화 전망 및 대만의 대응’ 주제로 열린 제3회회의는 장지아춘(Chang Chia-Chuen)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의 발표와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및 조나단 럭허스트(Jonathan Luckhurst) 일본 소카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장지아춘 교수는 “대만해협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연구는 양안 갈등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GPT-3 다빈치 모델(GPT-3 Davinci model) ▲부에노 데 메스키타 2011(Bueno de Mesquita 2011)의 전략 모델을 결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미국·중국·대만의 전략적 행위를 시뮬레이션하고 갈등 전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상만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게임이론, 수리경제 모델을 결합한 대만해협에서의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매우 도전적인 연구”이며, “미중 전략경쟁과 양안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재의 동북아 안보지형 속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예측 모델은 정책결정자와 학계 모두에게 실질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나단 럭허스트 교수는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인공지능(AI)과 대형언어모델(LLMs)의 사용은 유용하지만 불완전한 정보와 불확실성의 효과로 인해 왜곡에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남대와 일본 소카대, 대만 중국문화대는 동아시아 평화연구 활성화 및 3개국 간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돌아가며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첫 평화포럼은 ‘아시아에서의 평화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렸으며, 최근 2024년 평화포럼은

‘동아시아 질서 변화 속의 평화와 갈등’을 주제로 대만 중국문화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25 평화포럼에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박정진 경남대 특임부총장과 홍정호 교학부총장 등 한국, 일본, 대만의 전문가 20여 명을 비롯해 경남대 최고위과정 지역CEO와 연구자·학부생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발표전문 보러가기



< 2025 평화포럼 >

나. 제17차 삼청포럼 개최

안병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북한경제포럼 회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미래에 대한 답은 남북 간 협력 여부에 달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7월 24일 오후 7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안병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북한경제포럼 회장)이 “한반도 질서 변화와 원산의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하여, 북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원산이 개발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으로 ▲최적의 기후 ▲우수한 접근성 ▲풍부한 관광자원 등 지역적 강점 ▲근현대 동북아의 역사적 사건이 많았던 국제성 등을 꼽았으며, 이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지도자 모두 원산을 선호해왔다고 말했다. 관광지구 개발 과정에서 싱가포르, 쿠바, 스페인 등 해외 해양관광지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접근성 강화를 위해 ▲평양-원산 간

1. 학술활동

고속도로 유료화 ▲원산-함흥 간 고속도로 신설 ▲원산-금강산 간 철도 현대화 ▲원산갈마공항 신설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잇달아 구축하는 등 북한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연구위원은 관광지구의 성공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각이 크다고 밝혔다. 교통망 등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하며, 해양관광에 적합한 기후도 제한적이어서 1년에 해수욕 가능한 기간이 약한 달로 짧다는 것을 꼽았다. 중국·러시아 등 주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경쟁지 대비 매력과 비용 부담으로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제약으로 지적했다.

북한이 원하던, 원치 않던 원산갈마관광지구의 미래에 대한 답은 결국 남북 간 협력에 달려있다고 안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이어 원산갈마관광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설악산-금강산-원산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관광벨트의 구축 ▲한국(부산·속초)-일본(니가타)-북한(원산)-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간 해상크루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발표전문 보러가기



< 제17차 삼청포럼 >

다. 한국행정정책학회 「비확산·원자력 포럼」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북핵연구센터장) 등 한국행정정책학회 연구자 40여명은 7월 11일(금) 오후 2시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1세션) '핵무장국' 북한과의 공존-핵억제, 동맹, 자율성의 삼중 딜레마 ▲(2세션) 원자력 강국 한국의 조건-핵비확산 책임과 산업적 수요의 조화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프랭크 아움 (Frank Aum) 前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 등이 한반도와 역내 질서의 불확실성에 대해 발표했고, 제2세션에서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강경민 前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이 당면한 원자력의 농축과 재처리 사안들에 대해 포럼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 비확산·원자력 포럼 >

라.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 회장 방문 한반도정세 논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6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평화관 1층 소회의실에서 폴 J. 손더스(Paul J. Saunders)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 회장(President, Center for National Interest)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기관은 한반도정세 변화에 따른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특히 북러관계 변화에 따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동북아정세와 북미관계 전망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학술 연구 활동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학술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 학술활동



<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 회장 방문 한반도정세 논의 >

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 및 현대 아시아연구소 한국학센터장 일행 방문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7월 8일(화) 오후 2시 평화관 1층 소회의실에서 빅토리아 G. 삼소노바(Viktoria G. Samsonova)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 및 현대 아시아연구소 한국학센터장(Institute of China and Contemporary Asia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Head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일행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빅토리아 G. 삼소노바 한국학센터장, 알렉산더 제빈(Alexander Z. Zhebin) 박사, 알리사 A. 시리칼로바(Alisa A. Shirikalova) 연구원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최영준 국제협력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러시아 측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협력(MOU 체결)을 통해 연구실적 교류, 세미나 개최 등을 제안하면서, 양 기관이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기관은 동북아정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학술 교류 등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하였다.

※ 러시아 측은 동 연구소의 명칭이 과거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과학아카데미 중국 및 현대 아시아연구소로 바뀌었고, 현재는 국가별 센터 인력을 확충하여 200여명이 넘는다는데, 동 연구소는 한국학, 한반도의 현재 문제라는 정기 학술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학자들은 영어로 기고할 수 있다고 설명함.



< 한국학센터장 일행 방문 간담회 >

바. 중국 연변대학 최문 교수 방문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7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평화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소를 방문한 최문 중국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국제상무학과 주임 교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동북아 정세 등 최근의 한중관계와 북한연구 동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중국 연변대학은 폭넓은 학술교류 등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국 연변대학 최문 교수 방문 간담회 >

사. 노르웨이 분쟁해결센터 잉게뵈르 피인박 선임고문 방문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북핵연구센터장)는 7월 15일(화) 오후 3시 평화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잉게뵈르 피인박(Ingebjørg Finnbakk) 노르웨이 분쟁해결센터(Norwegian Centre for Conflict Resolution, NOREF) 글로벌 프로그램 선임 고문과 한반도 정세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인박 선임 고문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에서 지정학적 대화 및 지원 프로젝트를 선도해 온 전문가로 NOREF 합류 전 유럽평화연구소와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MONUSCO)에서 활동하며, 콩고 민주공화국(DRC) 동부에서 정부와 최대 무장 단체인 FRPI(이투리 애국저항전선) 간의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2020년 공식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피인박 선임 고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향후 정상회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등 동북아시아 주요 현안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 NOREF는 국제 분쟁의 예방, 완화 및 해결을 목표로 노르웨이 외교부에 의해 설립된 독립 재단이다. 이들은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평화 이니셔티브(트랙 1.5, 트랙 2)를 지원하고, 노르웨이 외교부나 유엔과 같은 중재자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평화 협상에 중재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분쟁 외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NOREF는 대화와 포괄적인 협상 과정을 통한 갈등 해결을 노르웨이의 오랜 전통으로 삼으며, 여성과 청년 등 전통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참여를 강조한다.



< 잉게뵈르 피인박 선임고문 방문 간담회 >

아. 학술지(국·영문) 발간

1) 『ASIAN PERSPECTIVE』 VOL. 49, No. 2, SPRING 2025 (2025. 6. 1.)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8년 학술진흥재단(現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 존스홉킨스대 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 주요내용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존스홉킨스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고 프로젝트 뮤즈(<https://muse.jhu.edu/issue/54927/print>)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ASIAN PERSPECTIVE' 49권 2호(2025년 봄)가 발간되었다.

이번 호에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의 강대국 경쟁에 관한 특별호 2부가 수록되어 있다. 소국, 연관국가, 경합국가, 영토 자치국가 등 다양한 이상적 유형의 국가 및 준국가에 걸친 강대국 경쟁의 역학을 포괄하는 비교 유형학을 발전시키는 이번 특별호의 2부에서는 유라시아로 초점을 돌려 투르크메니스탄(소국), 부탄(연관국가), 나고르노카라바흐(경합국가), 가가우지아(영토 자치국가)의 경험을 살펴보는 4개의 사례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특집호 논문 외에도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INSTC)에 대한 관련 행위자(유라시아, 러시아, 인도, 중국)의 이해, 기대, 도전, 이익, 아시아 국가 시민의 재분배 태도와 정부 신뢰의 관계, 1992년 한-중 관계 정상화 이후 한국 엘리트, 대중, 학자들 사이에서 등장한 중국에 대한 서사 등 다양한 국제, 지역 및 지정학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번 Book 심포지엄에서는 안드레아스 풀다의 저서 『독일과 중국: 어떻게 얽힘이 자유, 번영, 안보를 훼손 하는가』(블룸즈베리, 2024)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과거 특별호를 포함한 모든 호(1977년부터 2025년까지)는 프로젝트 뮤즈 (<https://muse.jhu.edu/journal/73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pecial Issue on Great Power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and Eurasia – Part 2

Great Power Competition in Small States: 227

The Case of Turkmenistan

Farkhod Aminjonov

Great Power Competition in Associated States: 251

The Case of Bhutan

B. M. Jain

Great Power Competition in Contested States: 275

The Case of Nagorno-Karabakh

Kristel Vits and Elias Götz

Great Power Competition in Territorial Autonomies: 299

The Case of Gagauzia

Marcin Kosienkowski

Politics in Asia

The Geoeconomics of the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323

Corridor: Connecting or Competing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Nurlan Aliyev

Institutional Trust, Individualism, and Redistributive Attitudes in 351
Asian Countries

Hoyong Jung

South Korea-China Relations

South Korea's Narratives on China: 379

Evidence from Elites, Masses, and Scholars

Esther E. Song

BOOK SYMPOSIUM

Book Symposium on Andreas Fulda. 2024. *Germany and China*: 397

How Entanglement Undermines Freedom, Prosperity and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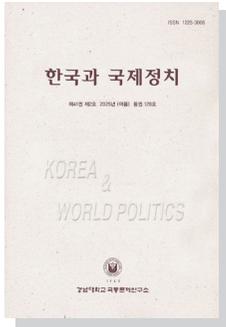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56 pp.

Martin Šebeňa

Rowan Callick

Andreas Fulda

2) 『한국과 국제정치』 제41권 제2호 2025년 (여름) 통권 129호 (2025. 6. 30.)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제41권 제2호, 2025년 (여름) 통권 129호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 차

- 미국 고립주의의 두 얼굴: 중국과 러시아 위협 인식에 따른 상반된 외교 태도
- 신영호(서강대학교) / 하상응(서강대학교)
-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존 미어샤이머의 입장과 그의 공격적 현실주의 간의 관계: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이론 체계’
- 백석훈(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딜레마의 이중 연쇄효과: 북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학
- 안정은(통일연구원)
- 김정은 시기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과 정당성 구축
- 이경수(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의 중위 민주주의 함정: 정당 탈제도화와 초양극화의 정치적 귀결
-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 『한국과 국제정치』 2025년 (여름) 통권 129호 주요 내용 >

신영호 하상응 연구자는 2020년 전미선거조사(ANES)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유권자의 타국 위협 인식이 고립주의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이 유권자의 외교정책 선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고립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반면, 러시아의 위협 인식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선호하는 경향과 상관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미국 유권자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군사안보 영역에서 중국은 잠재적인 도전자로, 러시아는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 진보 성향의 설문 응답자의 경우 중도 성향의 응답자 대비, 위협 인식이 고립주의 지지에 주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치 성향과는 무관할 것이라 예상되는 외교정책 태도에서도 보수-진보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백석훈 연구자는 저명한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2014년 초,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자 그 위기의 주된 원인은 부지불식간에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 서방, 특히 미국 주도의 나토 확장이기 때문에 그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나토 확장 정책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함으로써 러시아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기존 정책이 지속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그의 조언은 무시되었고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그의 예상은 실현되었다. 그 후로 학계와 미국 대외 정책에서 그의 공격적 현실주의의 영향력은 제고되어 왔다. 하지만 몇몇 국제정치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그의 견해가 그의 이론과 배치된다고 지적함으로써 그의 현실주의의 가치와 유용성에 도전하고, 그것에 입각한 정책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본 논문은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론의 변칙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에 ‘보조 가설들’이 추가된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그의 입장과 비교 대조되어야 하는 것은 그의 이론이 아니라 그의 이론 체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분쟁에 대한 그의 의견이 그의 이론과 상충된다는 비평가들의 지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그의 이론 체계와는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안정은 연구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북러협력의 심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북러는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에 전쟁 파병 및 군수품을 지원하며 군사적 위협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은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고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협 균형과 안보딜레마가 ‘이중 연쇄효과’를 촉진하는 데 주목한다. 이중 연쇄효과는 단순한 군비경쟁이 아니라, 다수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러우 전쟁으로 심화된 북러협력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 연쇄효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전략적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 간 조정을 촉진하며, 국제사회의 다자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연구자는 ‘정당성 구축’의 측면에서 김정은 시기의 독자적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해석하려는 시도다. 북한의 공식 언술에 대한 ‘두터운’ 독해와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양적 분석을 결합해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의 진화를 검토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과 인민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이 이론화되는 과정을 탐색하고 담론이 제시되는 방식이 변화된 점을 추적하여, 북한이 전체주의적 이념적 정당성을 넘어 권위주의적 업적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을 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김정 연구자는 한국 정당 정치의 탈제도화와 초양극화 현상이 상호작용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저해하는 ‘중위 민주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당 제도화는 정당 조직, 지역 지부, 강령의 차별성, 의회 내 응집력, 유권자와의 연계 구조 등을 통해 분석되며, 한국은 지난 30년간 정당 지부와 의회 응집력의 약화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후퇴하였다.

동시에, 정당 간 프로그램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지만 유권자의 이념 분포는 중도화되며 탈양극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당 체계와 유권자 간의 탈동조화를 초래하며, 포퓰리즘과 반자유주의 성향의 확산도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당 체계는 민주주의의 심화도, 후퇴도 유의미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정치적 정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정당의 제도화 쇠퇴와 초양극화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2. 교수진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 1) 북한연구소 월간(북한) 7월호 논문 게재
- 일자: 2025. 6. 30.(월)
- 제목: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비전, 함의와 전망
- 2) 통일부·국회(이용선·김기웅 의원)·대진대 등 공동 주최 2025 동북아 SDGs 네트워크 국제회의 발표
- 일자/장소: 2025. 7. 11.(금) /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
- 내용: SDGs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남북 및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함의

조진구 교수

- 1) 평화재단 2025 정기심포지엄 발표
- 일자/장소: 2025. 6. 26.(목) / 정토사회문화회관
- 내용: 새 정부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외교안보 전략
- 2) 2025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토론
- 일자/장소: 2025. 6. 27.(금) / 국회 의원회관
- 내용: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정세 평가(북일관계)

이병철 교수

- 1)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논문 게재
- 일자: 2025. 6. 20.(금)
- 내용: 북한 핵교리와 한국 핵무장 담론 간 동학

< 북한 핵교리와 한국 핵무장 담론 간 동학 주요내용 >

본 논문은 북한의 반복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한국의 국가 속성(state identity)을 어떻게 도전하고 재구성 압력을 가해왔는지를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담론 분석을 결합하여, 국가 속성이 정태적 실체가 아닌 동학(dynamics)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제도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주적 억지력 보유국가’로의 정체성 전환이 정책·담론 수준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변화는 단선적 전환이 아니라 긴장과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국가 속성의 동학(dynamics)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를 선언하였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필두로 현재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핵 고도화는 핵무기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외교적 협상 수단을 넘어 공식적인 국가 교리로 제도화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 내부의 핵무장 논의 또한 특정 시점의 위협 반응이 아닌 구조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2년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문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단지 안보 위기라는 감각을 넘어, 전략적 주체로서의 선택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한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무장 담론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담론은 북한의 핵교리 강화와 상호작용하며 진화하고 있는, 전략적 상호반응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 정치권의 발언, 언론과 학계의 논의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한국 사회 내부의 안보 정체성과 자율성 인식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담론은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혹은 ‘핵 공유 체제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으며,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 전략 사고의 일부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핵 잠재력이든 핵무장이든 그 어느 것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또는 핵무기를 완성(‘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징후일 뿐,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묘약(妙藥)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핵 잠재력과 핵무장은 북한 핵무력을 강화하는 촉진제이다. 그렇다면 핵 잠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고서 핵 잠재력 용어만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공론장에서 거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하다. 헤징이든, 미국의 후원 형태이든, ‘핵비확산 모범국’임을 자처하고 싶으면 한국은 핵 잠재력 확보를 워싱턴선언 합의 내용을 미국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면서 ‘서둘지 말고, 조용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교수진 연구활동

김상범/정재욱 교수

1) 북중접경지역 답사

- 일자: 2025. 7. 5.(토) ~ 7. 11.(금)

- 내용: 2025 북중접경지역 현장 답사 결과

< 2025 북중접경지역 현장 답사 주요내용 >

북한대학원대 구갑우 교수를 단장으로 교직원 및 재학생 등 총 20여 명이 참가한 2025 북중접경지역 답사는 중국 여순에서 도문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지역 현장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2024년 7월말 북한 신의주, 의주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지역 살림집과 제방의 재건축의 완성된 모습, 기후 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 단위의 국토환경 재정비 사업의 모습, 평북 삭주군 청수로동자구 화학공장(카바이트 공장) 내 일부 공장들의 운영 모습과 그 인근에 새로 건설된 지방 살림집들, 북중접경지역 북한 내 지역에 촘촘히 건설된 감시 초소와 운영 모습, 지방 공공건물의 신축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답사는 매일 북한의 보도를 통해 연구했던 사안들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함으로써 향후 연구과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연합뉴스 2025 한반도 심포지엄 토론
 - 일자/장소: 2025. 6. 26.(목) /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 내용: 트럼프 2기 국제질서 격변 새 정부 대응전략은?
- 2) 한백경제포럼 강연
 - 일자/장소: 2025. 7. 11.(금) / 한백경제포럼 회의실
 - 내용: 미국발 통상 전쟁 주제로 통상 전쟁의 배경과 현황 및 대응 방안
- 3) 전쟁기념사업회 주최 나지포럼 토론
 - 일자/장소: 2025. 7. 25.(금) / 전쟁기념관 회의실
 - 내용: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배경과 전망,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미칠 영향

이상만 초빙교수

- 1) 대만 8개국 국제학술회의 키노트 발표
 - 일자/장소: 2025. 6. 28.(토) / 타이베이 불광국제회의장
 - 내용: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중미 전략 경쟁의 본질-신중상주의의 제국주의 재현(川普二届中美战略竞争的本质—新重商主义的帝国主义重现)

임형신 초빙교수

- 1) (사)새한장학회문화교육포럼 주최 6.25전쟁 75주년 기념 세미나 토론
 - 일자/장소: 2025. 6. 7.(토) / 인천중구문화회관 대강당
 - 내용: 평화의 도약, 한반도의 미래를 잇다

최영준 초빙교수

- 1)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최, 제1회 스프리츠 디플로마시 포럼 발표
 - 일자/장소: 2025. 6. 24.(화) /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관저
 - 내용: 트럼프 2기 정부와 대한민국 새 정부 체제 하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정세 변화

2. 교수진 연구활동

< 포럼 발표 주요내용 >



트럼프 2기 출범 후 국제질서 변화를 보편가치에 기반한 국제적 협력 체제의 약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저하,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간 신뢰 감소로 짚었다. 또한 동북아에서도 미중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으로 내부 역학은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새 정부는 북한과의 긴장 해소와 관계 재설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환 초빙연구위원

1) 자료 발간

- 일자/출판사: 2025. 5. 29.(목) / 도서출판 선인
- 제목: 분열과 통합의 남북 체육사

< 분열과 통합의 남북 체육사 주요내용 >



이번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남과 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두고 남북이 협상하던 과정에서 북한이 '악마화'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북한과의 체육회담에서도 정부는 철저히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는 상식적인 것조차 비상식적으로 보이게 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시킨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단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불행한 역사였으며, 그 분단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체육 분야의 남북 회담 사례는 남북 관계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이었다. 적십자 회담, 고위급 회담, 군사 회담 등 여러 회담이 열렸으나, 체육회담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조차도

참여한 정치적 입장의 대립으로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어렵게 만나 작은 성과라도 내게 되면 남북 관계는 잠시 희망으로 전환되었다가, 곧 절망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내부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이상 이를 무시하고 남북의 체육인들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열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선술기 초빙연구위원

1) 연세대 통일연구원 논문 등재 (KCI 2025, vol.29, no.1, pp.79~118)

- 일자: 2025. 5. 7.(수)

- 제목: 북한 금융제도의 이원화 시도와 전략적 함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북한 금융제도의 이원화 시도와 전략적 함의 주요내용 >

본 연구는 북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사회주의 단일은행제도에서 이원적 은행 제도로의 전환이 갖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사례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특징과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유휴자금의 제도권 편입 등 제한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을 위한 개혁과는 달리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전략적 절충(strategic compromise)’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 금융개혁의 이중적 성격은 통제 유지와 점진적 유연화 사이의 조정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은 체제전환을 직접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기존의 계획경제를 보완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인 제도 개편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 실험이 축적되고, 향후 핵 문제 협상의 진전과 대북 제재의 점진적 완화가 이루어 진다면, 북한은 외화 결제 시스템 개선, 회계 기준 정비, 금융감독체계 구축 등 국제적 제도 지원과 연계하여 현재의 이원적 은행제도 기반 위에서 더욱 유연하고 점진적인 금융개혁 경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논문 등재 (KCI 2025, vol.15, no.2, 통권 39호 pp.107~132)

- 일자: 2025. 5. 28.(토)

- 제목: The Rise of Drone Warfare and South Korea's Strategic Tasks: Focusing on Drone Air Defense Systems and AI-Based Combat Platforms

2. 교수진 연구활동

< The Rise of Drone Warfare and South Korea's Strategic Tasks 주요내용 >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onvergence of dron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transforming modern warfare, particularly in terms of operational structures and battlefield ecosystems. Drawing on three key conflicts—the 2020 Nagorno-Karabakh War, the 2022 Russia-Ukraine War, and the 2023 Israel-Hamas War—it analyzes the evolution of drones into multi-domain platforms used for reconnaissance, strikes,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The integration of AI-based target analysis has emerged as a critical technology for achieving temporal and informational superiority. North Korea is also leveraging drone capabilities and reportedly gaining operational experience through cooperation with Russia. In response, South Korea must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drone-specific air defense systems and transition strategically toward AI-based combat operations. This study offers a strategic framework for reconfiguring national security.

이인엽 교수, Tennessee Tech University, USA

- 1) IFES 해외방문학자 연구보고서
 - 연구기간: 2025. 5. 20.(화) ~ 7. 25.(금)
 - 내용: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한국 정부의 역할

<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한국 정부의 역할 주요내용 >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며,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북은 자신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했고, 북러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기에 이에 기초해 생존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으며, 파격적인 제안이 없다면 트럼프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CVID가 아닌 비확산, 동결, 군축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만일 북미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면, 이를 지렛대로 북중 관계 개선, 그리고 러시아가 제공하기 힘든 경제발전의 기회를 노려볼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신정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헤징 전략을 복원할 필요가 있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북미 간에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관계 개선과 신뢰구축,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 1) KBS 뉴스 인터뷰 (2025. 6. 5. 목 / 6. 6. 금 / 6. 11. 수 / 6. 12. 목 / 6. 19. 목 / 6. 25. 수 / 7. 8. 화 / 7. 11. 금 / 7. 12. 토 / 7. 13. 일 / 7. 17. 목 / 7. 22. 화)
 - 북, 남한 대선 '두 문장' 보도...김정은, 쇼이구 만나 협력 논의 (6. 5. 목)
 - '구축함 물에 띄워져' KBS 보도 이후 북 매체 "안전하게 진수" (6. 6. 금)
 - 대북 확성기 방송 1년 만에 중지... "남북 신뢰 회복" (6. 11. 수)
 - '확성기'엔 호응, '친서'는 거부...북한의 속내는? (6. 12. 목)
 - "북, 공병 6천 명 추가 파견"...대통령실 "우려할 일, 지지 안 해" (6. 19. 목)
 - 대북 접촉 차단 빗장 풀었다...정부, 민간단체 접촉신고 수리 (6. 25. 수)
 - 해상 표류 북한 어민 '송환' 가닥...북한 반응할까? (7. 8. 화)
 - 미·일에 '대북 긴장완화 조치' 설명... '동맹 현대화' 논의 본격화 (7. 11. 금)
 - [이슈&한반도] '우라늄 폐수'로 서해 오염?...실태 조사 외 (7. 12. 토)
 - 북한도 연일 폭염...고질적 전력난에 주민들 '진땀' (7. 13. 일)
 - 북중 정기 열차 항공 노선 공지...관계 회복 신호탄? (7. 17. 목)
 - 정부, 북한 개별관광 검토...관계 복원 카드 될까? (7. 22. 화)
- 2) JTBC 뉴스 인터뷰 (2025. 6. 6. 금 / 6. 24. 월)
 - '김정은 격노' 보름 만에 일으켰다...위성사진 포착 (6. 6. 금)
 - 미국, 이란처럼 북한도?... '핵 시설 공습' 가능성 따져보니 (6. 24. 월)
- 3)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 (2025. 6. 5. 목 / 6. 24. 화 / 7. 7. 월)
 - 북한, 한국 대선 신속 보도... 대북정책 변화 주목하나? (6. 5. 목)
 - 다음은 영변 폭격?...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6. 24. 화)
 - 북한 관광지 개발과 트럼프의 관심 (7. 7. 월)
- 4) YTN 뉴스 인터뷰 (2025. 6. 14. 토 / 7. 12. 토)
 - 방공망에 열 올리는 북... "이스라엘 공습도 영향 있을 것" (6. 14. 토)
 - 응답 대신 '마중' 나온 북... 미묘한 변화? (7. 12. 토)
- 5) 연합뉴스 TV 인터뷰 (2025. 6. 12. 목)
 - 한미 손짓에 북한 대응 주목... "당장 우호적 변화는 난망"

2. 교수진 연구활동

- 6) MBN 뉴스 인터뷰 (2025. 6. 12. 목 / 6. 30. 월)
 - 김정은, 푸틴에 "진정한 전우"...러 관광객 맞이 위한 '갈마역' 준공도 (6. 12. 목)
 - 김정은, 침통한 표정에 무릎 꿇고 전사자 시신 인수 (6. 30. 월)
- 7) 아리랑TV 뉴스 인터뷰 (2025. 6. 12. 목)
 - N. Korea refusing to accept letter from Trump: media report
- 8) CNN 인터뷰 (2025. 6. 26. 목)
 - Why Trump's strikes on Iran will leave North Korea more determined than ever to keep its nukes
- 9) 한국일보 인터뷰 (2025. 7. 1. 화)
 - 북, 두만강역 일대 침묵 콘크리트로 교체... "군수물자 이송·고속화 대비"
- 10) 채널A 뉴스 인터뷰 (2025. 7. 17. 목)
 - [단독] '다케시마' 방위백서 이틀 만에 '독도 훈련' 맞대응

조진구 교수

- 1) 뉴스1 인터뷰 (2025. 6. 19. 목 / 7. 3. 목 / 7. 23. 수)
 - 과거 아닌 '미래' 키워드로 日 당겼다...이재명식 실용외교 첫 성과 (6. 19. 목)
 - 한일관계 강화 의지 재확인...DJ-오부치 잇는 '새 선언' 추진 주목 (7. 3. 목)
 - '8월 사임론' 불거진 이시바...李 대통령 '8·15 경축사' 고심 깊어질 듯 (7. 23. 수)
- 2) 한국일보 인터뷰 (2025. 6. 19. 목)
 - '과거' 대신 '미래' 얘기했지만...한일 앞에는 여전히 첩첩산중 과제
- 3) 월간조선 기고 (2025년 7월호)
 - 특집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
 - * (기고 전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507100031>
- 4) 한겨레신문 인터뷰 (2025. 6. 23. 월)
 - 한·일 60년의 그림자...과거사 봉인한 채 "이만하면 만족"
- 5) 월간조선 칼럼 기고 (2025. 7월)
 - 2011년 이후 기본조약에 근거한 법적 기반 흔들리기 시작
 - * (칼럼 전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507100031&page=1>
- 6) 머니투데이 인터뷰 (2025. 7. 8. 화)
 - 한일 과거사 문제, 국제무대 '초유의 표대결'...실용외교 노선에 큰 부담

이병철 교수

- 1) 신경제신문 칼럼 기고 (2025. 6. 16. 월 / 7. 9. 수 / 7. 21. 월 / 7. 25. 금)
 - 이재명 대통령의 확성기 중단과 '말없는 외교'의 의미 (6. 16. 월)
 - * (칼럼 전문) <https://www.theneweconomy.kr/news/articlePrint.html?idxno=13712>
 - 한미 외교, 비공식 채널에 달렸다 (7. 9. 수)
 - * (칼럼 전문) <https://www.theneweconomy.kr/news/articlePrint.html?idxno=13836>
 - “휘둘리지 않는 동맹”을 향해: 트럼프의 거래주의와 한국 외교의 시험대 (7. 21. 월)
 - * (칼럼 전문) <https://www.theneweconomy.kr/news/articlePrint.html?idxno=13892>
 - 트럼프식 거래에 김현종이 다시 소환돼야 하는 이유 (7. 25. 금)
 - * (칼럼 전문) <https://www.thenew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13917>
- 2) 중앙일보 인터뷰 (2025. 6. 19. 목 / 7. 2. 수)
 - 언제든 이란 신세 될 수 있다…중동사태 본 김정은 복잡한 속내 (6. 19. 목)
 - 트럼프와 상견례 못했는데…"中, 9월 전승절에 李초청 타진" (7. 2. 수)

김상범 교수

- 1) MBN 뉴스 인터뷰 (2025. 6. 12. 목)
 - [뉴스추적] 남북 추가 조치 가능성은…북 ICBM 발사 징후
- 2)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기고 (2025. 7. 21. 월)
 - 내용: 사회사에 대한 국제평론(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 * (기고 전문) <https://doi.org/10.1017/S0020859025100333>

강인덕 초빙석좌교수

- 1) 조선일보 인터뷰 (2025. 7. 14. 월)
 - "한덕수·최상목 특사 보내면, 美가 李정부 다시 보게 될 것"
 - * (인터뷰 전문)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7/14/HCQ4AJVZNVG6PMD4QOSDC2RFAI/>

2. 교수진 연구활동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한국일보 칼럼 기고 (2025. 6. 23. 월 / 7. 21. 월)
 - 중국과의 '단기 실리' 추구는 답이 아니다 (6. 23. 월)
 - * (칼럼 전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911160002361?did=NA>
 - 관세 전쟁, 중국 이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7. 21. 월)
 - * (칼럼 전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715200002115?did=NA>
- 2) KBS 국제방송 인터뷰 (2025. 7. 16. 수)
 - 미국발 통상 전쟁 주제로 통상 전쟁의 배경과 현황 및 대응 방안

곽태환 초빙석좌교수

- 1) 통일뉴스 칼럼 기고 (2025. 6. 29. 일 / 7. 11. 금 / 7. 25. 금)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명의 전략적 함의 (6. 29. 일)
 - * (칼럼 전문)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48>
 - 이재명 시대, 핵 없는 한반도 평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7. 11. 금)
 - * (칼럼 전문)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53>
 - 트럼프 2기의 글로벌 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 (7. 25. 금)
 - * (칼럼 전문)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57>
- 2) 브레이크뉴스 특별 기고 (2025. 7. 21. 월)
 - 미국 국적자의 국내정치 개입, 국제법적·외교적 대응
 - * (특별기고 전문) <https://www.breaknews.com/1134324>

최영준 초빙교수

- 1) 뉴스1 인터뷰 (2025. 6. 16. 월)
 - 대북전단 통제한다는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피하나

이상만 초빙교수

- 1) 산동대국제문제연구원[山大國際觀察] 기고 (2025. 6. 8. 일)
 -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인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전망(李在明政府实用主义外交政策下的韩中关系展望)
-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기고 (2025. 6. 9. 월)
 - 트럼프 2기 미중 패권경쟁의 본질과 국제질서의 전환-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의 개념화를 중심으로
 - * (기고 전문)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7165&mid=a20200000000&board_id=4
- 3) 중국국무원 중국망 기고 (2025. 6. 11. 수)
 -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재조정 의지 피력
 - * (기고 전문) http://korean.china.org.cn/2025-06/11/content_117921659.html
- 4) 홍콩 명보신문 기고 (2025. 6. 23. 월)
 -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한국의 외교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가?
 - * (기고 전문) <https://news.mingpao.com/pns/%E8%A7%80%E9%BB%9E/article/20250623/s00012/1750610223398>
- 5) 중국 인터넷 인민일보 기고 (2025. 7. 17. 목)
 - 공급망 재편의 시대, CISCE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 (기고 전문) http://korean.china.org.cn/2025-07/17/content_117983141.html

권기원 초빙교수

- 1) 아주경제 칼럼 기고 (2025. 7. 18. 금)
 - 불법공매도 엄정 대응에 대한 입법동향
 - * (칼럼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50718163723783>

박준혜 연구위원

- 1) 『통일2025』 통권 525호(2025) pp. 6-10 칼럼 기고 (2025. 6월호)
 - 남북 정책 반복된 0시: 연속성과 정권 교체의 경계에서

3. IFES 브리프 및 포럼

가. IFES 브리프 (6건)

IFES 브리프(요약)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실용주의적 한중관계 발전

2025. 6. 10.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리셋코리아와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미일 일변도 대외정책으로 중북리가 단합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전임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외교 중심의 한미·한일 공조체제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대외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외교노선의 유연성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직면 한 외교적 딜레마 즉, 동맹의 의무와 자율적 외교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대중 대외정책 선택지는 국가정체성, 자유주의 가치, 종합국력, 분단체제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사안별로 '조건부 편승 전략'을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와 한미동맹

2025. 6. 13. 정재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한중관계 개선, 한러관계 개선, 남북 대화와 협력 등은 모두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다. 하지만 이들 정책 목표는 상호 연결돼 있으며, 결정적인 독립변수가 나머지 종속변수들을 규정하는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서 근간을 이루는 핵심 독립변수는 한미동맹이다.

이 대통령 앞에는 관세 협상을 비롯해 대중국 경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대북 정책 공조 등 중요한 한미동맹 과제들이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상외교의 시동을 건 이 대통령은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한미일 협력→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필자의 제안은 ①‘자주나 동맹이냐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 자제, ②미·중 전략 경쟁연루 가능성을 낮추 되 불가피할 경우 동맹국과의 보조, ③대미 협상에서 ‘주고 받기 식’ 패키지 거래 양국 정상 간 인간적 신뢰 구축 등이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 배경과 전망

2025. 7. 1.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핵연구센터장)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중동 분쟁을 격화시키며 이란 핵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과 군사적 결정이 결합된 이번 공격은 이란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대규모 작전 이었다.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7대와 최대 벙커버스터 폭탄인 GBU-57을 동원하여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으며, 잠수함에서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이스파한 핵시설을 타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IAEA 사무총장은 이란 핵시설 일부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핵무기 문턱국가’(a nuclear threshold state)로 남아있으며, 중동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이는 군사적 조치가 단기적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해결에는 외교, 경제 제재, 국제 공조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특히 이미 ‘핵무장국가’(a nuclear-armed state)인 북한에는 미국의 선제공격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란 사태는 북한에게도 핵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3. IFES 브리프 및 포럼

IFES 브리프(요약)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현황 및 북한에서의 의미

2025. 7. 2. 안병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지난 6월 24일 김정은이 참석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개최 되었다. 이 행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해안과 ‘콘도’ 개발 발언 속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북한의 원산이 해안관광지구 개발의 대상지가 된것은 역사적, 인문 지리학적 맥락에서 기후, 교통 접근성, 관광자원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정권에서 1970년대부터 인민의 문화휴양지에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시키려는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은 대북제재를 극복한 상징물로 선전됐다. 김정은은 원산이 지방 진흥과 나라의 경제 성장을 추동하는 전략적 지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원산갈마해안 지구의 개발은 초기 설계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싱가포르 방문에 이루어진 현지 관광시설 시찰 경험, 쿠바나 스페인의 개발 사례가 반영된 것이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향후 한일 관계

2025. 7. 22.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본연구센터장)

2025년 7월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반면, 야당 가운데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등이 약진했다. 이시바 총리는 ‘비교 제1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무’를 자각해야 한다고 총리직 계속 수행 의지를 표명했지만, 2024년 10월의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 여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략한 정치적 책임은 크다. 향후 야당 일부를 포함한 새로운 연립 정권 구성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야당의 협력 없이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의 불안정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과거사·영토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경제·통상, 사회문화, 환경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 나타난 기성정당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감 등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일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의 쟁점과 시사점

2025. 7. 28. 김서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연구교수

2025년 7월, 금강산이 한반도 최초의 복합유산이자 문화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북한은 외금강과 내금강(1구역), 삼일포(2구역), 해만 물상(3구역), 총석정(4구역) 등 4개 구역을 신청했으나, 세계유산위원회는 1·2구역만 복합유산으로 인정하였다.

금강산은 불교 산악문화와 수려한 경관미로 등재 기준 (iii), (vii)를 충족했으며, 고려·조선 시대 문인과 예술가들이 금강산을 시·서화의 대상으로 예찬해 온 점이 문화적 상징성으로 인정되어 문화경관 중 연상적 경관 유형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과정에서 북한은 정치적 로비 없이 자문기구의 평가를 수용하며 절차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세계유산 제도의 정치성과 대비되며, 자주, 평화, 친선을 내세운 북한의 외교 노선 속에서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금강산은 향후 유산 보존과 관광 개발 간의 균형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과제로 남아 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3. IFES 브리프 및 포럼

나. IFES 포럼 (4건)

IFES 포럼(요약)

A North Korea Strategy fo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2025. 6. 24.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핵연구센터장)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IFES 포럼(요약)

“Self-Reliance” and “Alliance”: Two Pillars of Foreign Policy for the New Lee Jae-myung Government

2025. 7. 4.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IFES 포럼(요약)

Strategic Vis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ond Term and ROK's Response Strategy

2025. 7. 24.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IFES 포럼(요약)

Rightsizing Expectations: Prospects for a New Sino-ROK Détente

2025. 7. 25. 양향봉 중국 링난대학교 부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김정은, 강동군병원·종합봉사소 건설장 현지지도, 의료설비·역량·의료일꾼 양성 강조(6.3. 조선중앙통신)**
 - 강동군병원 건설장을 방문해 연내 강동군병원을 포함한 '3개 병원 시범 건설'의 중요성, 그 과정에서 부류별 지방병원 설계의 최량화·최적화 방안들 확정할 것 등 언급
- **김정은-쇼이구 담화, 김정은 “북러조약 조항들 책임적으로 준수할 것”(6.5. 조선중앙통신)**
 -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3.21. 이후 70여 일 만에 다시 방북해 김정은을 만나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활약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특별 감사 전달
-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영변에 새 핵시설 건설 중”(6.9. IAEA; 6.10. 연합뉴스)**
 - 6.9. IAEA 이사회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보고(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 내용)
- **김정은,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 “현대전 맞는 신형 포탄생산 늘리라”(6.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사회로 6.21.~6.2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6.24. 조선중앙통신)**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진행(6.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올해의 가장 큰 성과들중의 하나로 기록될 경이적인 실체”,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기간내에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제9차대회에서 확정” 언급
- **북한 매체, 러시아 파병 북한군 모습 대내 첫 공개(6.30. 뉴스1)**
 - 김정은이 방북 중인 러시아 문화장관과 함께 관람한 예술공연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에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 관련 사진이 여러 장 나온 것 확인(6.30. 로동신문)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 전원회의,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생물안전법·노동능력의학감정법 등 채택하고, 최고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들 소환 및 선거(7.4. 조선중앙통신)**
- **평양시 및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7.7.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북한-러시아 '제2차 전략대화' 원산에서 개최(7.13. 조선중앙통신; 7.13. 로동신문)**
 - 7.12. 김정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담화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 북중우호조약 64주년 기념, 7.9. 평양 중국 대사관 및 청진 중국 총영사관 연회(7.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마감단계 낙원군 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장 현지도 “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은 지방 경제 발전 위한 창조사업” 강조(7.14. 조선중앙통신)
- 김여정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어떤 제안도 흥미 없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남 관련 첫 공식 반응(7.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 사격훈련경기 참관 “가장 확실한 억제력, 철저한 주적 관점”, “현대전장 환경에 맞게 우리 식 포병전술·전투조법들 진화시켜라”(7.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7.27 기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방문 “위대한 전승세대처럼, 반드시 부국강병 대업 성취해 반제반미대결전에서도 영예로운 승리자 될 것”(7.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우의탑’ 방문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의 전투적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7.27. 조선중앙통신)

미국 / 일본

< 트럼프 행정부 관세전쟁 관련 >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 50% 인상 포고문 서명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 생산된 철강·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6.3. 백악관 홈페이지; 6.4. 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 25~50% 또는 10% 부과”(6.29. 폭스뉴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유예 시한(7.8.)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며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

< 일반사항 >

-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 목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 초안작성”, “여러 차례 친서 전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뉴욕 맨해튼 북한 측 외교관들이 수령 거부”(6.11. NK뉴스; 6.11. 연합뉴스)
- 미국 국방장관 “동맹국 안보부담 늘리고 미국은 집중할 영역에 집중”(6.12. 연합뉴스)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2026년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 관련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기초 설명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초와 이를 위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요소 명기할 것”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관련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답변 “아시아 포함 모든 동맹에 새로운 국방지출 기준 마련”(6.18.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6.19. 연합뉴스)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트럼프, 10월 APEC 방한하면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가능성”(6.30. CSIS; 7.1. 연합뉴스)
-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미국,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상당한 대북 억제력 확보”(7.1. CSIS; 7.2. 연합뉴스)
-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 성명 “북한 핵·미사일 규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7.1.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 7.2. 연합뉴스; 7.2. NK뉴스)
- “트럼프 - 시진핑,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만날 가능성 높아”(7.20. SCMP; 7.21. 연합뉴스)
- 일본 여론조사, 일본인 59%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일관계 변화 없을 것”(6.9. NHK)
 - 한국 이재명 대통령 선출, 한일관계는?
 - ▣ 좋아질 것 5% / 나빠질 것 24% / 변화 없을 것 59% / 모름·무응답 12%
- 일본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 서쪽 바다에 새 구조물 설치 움직임 확인, 매우 유감”(6.24. 일본 외무성; 6.24. 연합뉴스)
- 주일미군 사령관, 주일미군 임무 확대 조정 가능성 언급(6.28. 아사히신문; 6.30. 연합뉴스)
- 일본 언론, 7.23. 일본-유럽연합(EU) 정상회담서 대규모 위성망 구축 협력 방침에 합의할 것 “위성망 구축 협력 통해 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 의존도 낮추려”(7.12. 닷케이; 7.13. KBS)
- 정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7.15. 연합뉴스; 7.15. 일본 방위성)
- 미·일 “동아시아 유사시 대비 미국 핵무기 사용 도상연습”(7.27. 교도통신; 7.27. 연합뉴스)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중국 / 러시아

- 왕이 중국 외교부장,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중국 집중 막는 축복”(7.5.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7.5. 조선일보)
- 중국 “2개 항모 서태평양 훈련 종료, 외국군 접근에 함재기 대응”(6.30. CCTV; 6.30 연합뉴스)
- 중국군이 항공모함 2개 전단이 참여한 서태평양 원양 합동 훈련 종료
- 중국 국방부 “대만해협 중간선은 존재하지 않아”(7.14. 환구시보 영문판; 7.15. 연합뉴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2차 휴전 협상, 중상자 및 18~25세 젊은 군인 등 포로 최소 각 1,000명 교환과 전사자 시신 송환만 합의 후 종료(6.2. 키이우인디펜던트; 6.3. AP통신)
- 모스크바-평양 직통열차 5년 만에 운행 재개(6.10. 연합뉴스)
- 러시아 철도청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직통열차(월 2회) 6.17.부터 운행 재개, 북한 철도 당국과 합의”, 6.19.부터 하바롭스크-평양 직통열차(월 1회)도 운행 시작
- 김정은-쇼이구 회담, 북한군 전투공병·건설노동자 등 6천 명 추가 파견 논의(6.17. 타스통신)
- 북-러간 ‘쿠르스크 복원’ 협력, 공동 실무그룹 구성(6.18. 타스통신; 6.18. KBS)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박정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간 회담
- 북한, 러시아 드론 공장에 노동자 2만 5천 명 파견 계획(6.19. NHK; 6.19. SBS)
-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 소재 드론공장에 북한 노동자 2만 5천명 파견해 드론 조립 등 돕고 드론 조종 훈련까지 받는 방안 검토 중
- 3년 만의 러시아-프랑스 정상 통화, 푸틴 “우크라이나 상황은 서방 국가들 정책의 직접적 결과”, 마크롱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7.2. 로이터; 7.2. KBS)
- 러시아 “모스크바-평양 직항 여객기 7.27.부터 운항”(7.14. 타스통신; 7.15. 연합뉴스)
- 푸틴 “중국·북한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 검토” 거론(7.16. 타스통신; 7.17. 연합뉴스)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동향

- 선술기 초빙연구위원 (2025. 6. 1. ~ 2026. 5. 31.) / 현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북한시장화연구센터 연구실장 · 책임연구위원
- * (연구책임자)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추진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 북한 인플레이션 예측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
- 박준혜 연구위원 (2025. 7. 1. ~ 2026. 6. 30.)
- 전령현 초빙교수: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2025. 6. 5. ~ 2027. 6. 4.)
- 정재용 초빙연구위원 (2025. 8. 1. ~ 2026. 7. 31.)
- 김연철 초빙연구위원 (2025. 8. 1. ~ 2026. 7. 31.) / 전 통일부장관

나.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극동문제연구소 방문

- 일시/장소: 2025년 6월 27일 (금)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참석자: 박재규 경남대 총장,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 내용: 박재규 경남대 총장 예방



다. 중국 천진사범대 외국어대학과 MOU 체결

- 일시/장소: 2025년 7월 28일 (월)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참석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중국 천진사범대 외국어대학) 김애화(Jin Aihua)·전월매(Tian Yue-Mei) 교수
- 내용: 양 기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중국 천진사범대 외국어대학) MOU 체결
 - 금번 학술교류협정은 방문연구자 교류를 포함하고 있어, 본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중국 천진사범대 연구자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관세 소장은 지역학 인재육성에 방점을 둔 천진사범대 외국어대학과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학 및 동북아 국제정세 등을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양 기관은 학술교류, 연구 협력, 연구자원 공유 등 향후 다각적인 교류를 희망하면서, 세미나 및 학술사업의 공동 진행과 발간자료 교환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라. 국내외 주요인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 현황

일자	성명	소속 및 직책	방문 목적	비고
6월 13일	타마이 히데키 (Tamai Hideki)	일본 소카대 부총장	2025 평화포럼 참석 * 발표 및 토론자	경남대 본교 방문
	코이데 미노루 (Koide Minoru)	일본 소카대 교수		
	조나단 럭허스트 (Jonathan Luckhurst)	일본 소카대 교수		
	웨이치아인 (Wei Chia-Yin)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		
	로저 S. 첸 (Roger S. Chen)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		
	장지아춘 (Chang Chia-Chuen)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		
6월 27일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재규 경남대 총장 예방	연구소 방문
	폴 J. 손더스 (Paul J. Saunders)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회장	이관세 소장과 한반도 경제 논의	
7월 8일	빅토리아 G. 삼소노바 (Viktoria G. Samsonova)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 및 현대 아시아연구소 한국학센터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활발한 학술교류 희망	"
	알렉산더 제빈 (Alexander Z. Zhebin)	박사		
	알리사 A. 시리칼로바 (Alisa A. Shirikalova)	연구원		
7월 11일	전봉근	한국행정학회회장	비확산 원자력 포럼 참석 * 발표 및 토론자	"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프랭크 아움 (Frank Aum)	前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강정민	前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월 15일	잉게보르 피인박 (Ingebjørg Finnbakk)	노르웨이 분쟁해결센터 선임고문	이병철 교수와 한반도 경제 논의	"
	최문	중국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국제 상무학과 주임교수	한중관계와 최근의 북한 동향 의견 교환	
7월 24일	안병민	북한경제포럼 회장	제17차 삼청포럼 발표	"
7월 28일	김애화(Jin Aihua)	중국 천진사범대 외국어대학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학 술교류 등 다양한 협력 추진 (MOU 체결)	"
	전월매(Tian Yue-Mei)	중국 천진사범대 외국어대학 교수		
합계	외국인 15명 / 내국인 7명			

2. 언론 속의 IFES

가. 2025 평화포럼 개최 결과 언론보도 (2025. 6. 13.)

연합뉴스, CNB 뉴스, 경남신문, 뉴스프리존, 경남에나뉴스, 부산일보, 한국대학신문, 베리스타알파 등 18개 국내 언론사에서 『2025 평화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경남대·소카대·중국문화대, '동북아 협력 방안' 평화포럼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대학교는 13일 학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일본 소카대학·대만 중국문화대학과 '2025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트럼프 2기 출범과 동북아 정세 변화 전망 및 3국의 대응'이 주제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개회 인사에서 "이번 포럼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의 시각을 진솔하게 교류하는 등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우정과 협력을 넘어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나. 제17차 삼청포럼 개최 결과 언론보도 (2025. 7. 24.)

뉴스1, 연합뉴스, 서울평양뉴스,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CNB 뉴스, 경남도민신문, 베리스타알파 등 13개 국내 언론사에서 『제17차 삼청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北갈마지구 관광 활성화, '설악-금강 원산 관광벨트' 구축 성공에 달려"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이달 초 개장한 원산 갈마관광지구를 활성화하려면 남북 협력을 통한 '설악산-금강산-원산 관광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안병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북한경제포럼 회장)은 24일 경남대 평화관 대회 의실에서 개최된 제17차 삼청포럼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안 초빙연구위원은 관광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설악-금강-원산 관광벨트 외에도 '한국(부산-속초)-일본(니가타)-북한(원산)-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해상크루즈 관광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안 연구위원은 북한의 관광지구가 남북 협력 없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그는 "교통망 등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하며 해양관광에 적합한 기후도 제한적으로, 1년에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달로 짧다"라면서 "중국-러시아 등 주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경쟁지 대비 매력과 비용 부담으로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3. IFES 도서관

가.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7월 23일(수) 오후 2시 평화관 1층 대회의실과 북한 특수자료실에서 북한자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북한 통일연구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북한 통일문제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연구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북한 특수자료실 소개 영상 및 북한 영화 감상 ▲북한자료 관련 특강 (주제: 북한자료 읽기) ▲북한 특수자료실 및 디지털아카이브 현장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자료 관련 특강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특수 자료의 중요성과 의미 및 특성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주요 북한 특수자료 등을 소개했다.

또한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생 및 연구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에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연구소는 향후에도 북한 통일문제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동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 특강 >



< 북한특수자료실 견학 >

나.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 도서관은 연중 매일 도서 나눔을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 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2025.6~7월중 개방서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 기증 149권, 도서 나눔 183권

3. IFES 도서관

다. 신간 도서 안내

연구소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북한 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2/4분기 중 신간 도서 22권을 입수하였다.



< 주요 신간 도서 목록 >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넥서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24
장덕수 연구(양장본 Hardcover)	심지연	백산서당	2025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최윤식	리더스북	2025
전쟁이 만든 세계	윌리엄스 머리	미래의창	2025
조선문학예술년감 주체112(2023)년	리승철	문학예술출판사	2024
총서<불멸의력사>종소리(장편소설)	주설웅	문학예술출판사	2024

4. 예정사항

가. '2025 글로벌 한마' (2025. 8. 14.)

o 6개국 13개 대학 총 29명 참가 예정

나. 동일본국제대학교 학생단 방문 (2025. 8. 28.)

다. AI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2025. 8. 13. ~ 8. 28.)



AI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AI 시대의 한반도 미래 전략

- 모 집 대 상 인공지능(AI) 시대의 한반도 미래 전략에 관심 있는 분
- 모 집 인 원 30명 내외
- 접 수 기 간 2025년 8월 13일(수) ~ 8월 28일(목)
- 강 의 일 정 2025년 9월 11일 ~ 11월 27일(매주 목요일 19:00~21:00)
- 강 의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서울 중로구 북촌로15길 2, 삼청동)
- 수 강 료 100만원
- 접 수 및 문의 수강신청서 이메일 제출
* 서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ifes.kyungnam.ac.kr>) 교육 교류 > IFES 아카데미 > AI 아카데미
E-mail. ifes@kyungnam.ac.kr / TEL. 02)3700-0700



AI 아카데미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차시	일정	주제	강사
1강	9월 11일	인공지능의 진화와 인간 사회의 미래	류원정 조선비즈 콘텐츠 전략팀장
2강	9월 18일	AI 시대 윤리적 딜레마와 철학적 성찰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
3강	9월 25일	AI 시대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미래 산업	신형찬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4강	10월 16일	미중관계와 중국 AI 혁신전략과 한중관계	이희욱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장
5강	10월 23일	AI 시대 전쟁과 안보	설인효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6강	10월 30일	북한의 AI 기술 개발과 적용 현황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7강	11월 6일	AI 시대 남북관계 연구분석의 새로운 도전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8강	11월 13일	AI 기반 남북협력과 기술 평화 구상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9강	11월 20일	AI 시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 전략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10강	11월 27일	AI 관련 산업단지 현장학습	

* 강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5.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문의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50,000원/일반회원: 70,000원/기관회원:13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북한자료 열람 가능)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